

제주항공, 올 1Q 영업익 644억 흑자전환…"기단 현대화로 수익성 개선"

등록 2026.05.08 16:39:58



[서울=뉴시스] 제주항공의 B737-800 항공기의 모습. (사진=제주항공 제공) 2026.5.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기단 현대화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과 여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 4982억원, 영업이익 64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1분기 순이익은 1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으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기단 현대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여객 수요 증가를 꼽았다.

올 1분기에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구매기 2대를 도입하고, 경년 항공기 매각 및 반납으로 연료효율이 좋은 차세대 항공기 비중을 확대해 유류비 절감효과를 거뒀다.

실제 차세대 항공기 도입 확대에 따른 연료 효율 개선으로 2025년 유류비는 전년에 비해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령 20년 이상의 B737-800 리스 항공기 2대를 반납했으며, 올해 3~4월에는 경년 구매

기 2대를 매각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B737-8 10대에 더해 연말까지 5대를 추가 구매 도입할 계획이다.

수송객 증가와 높은 탑승률도 수익성 개선에 주효했다.

2026년 1분기 탑승객 수는 331만1358명으로, 2025년 1분기에 비해 24.2% 증가하며 국적 LCC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탑승률은 91.9%로 국적사 평균 탑승률 88.8%을 웃돌았다.

제주항공은 효율적인 노선 운용을 통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계스케줄이 시작된 3월 29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하루 왕복 4회 증편 운항하고 있으며, 일본 노선에 임시 증편하면서 공급석을 확대해 일본 노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와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실경영 중심의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단 현대화와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